

끼아라가 우리와 함께 얘기해요¹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게다가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차오 끼아라, 사랑해요! 저는 아르만도이고, 나폴리의 4 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²

Chiara: 자, 아르날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 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젠들, 나는 여러분보다 크지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아는데, 나는 경험이 좀 있거든요. 세상에는 행복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그 행복을 찾지요. 텔레비전에서 찾고, 영화에서도 찾고, 댄스에서도 찾고, 또... 세상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심지어 마약에서도 찾으려고 하지요. 자, 여러분도 행복을 찾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행복을 찾아요. 그러니 세상에 참된 행복을 선물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행복도 있어요. 가령, 누가 장난감을 선물해 주면 여러분은 행복하지요. 또 과자를 주어도 행복해요. 하지만 그건 짧은 행복이에요. 얼마 가지 않거든요.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알아요? 한 번 해보세요. 참된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면, 항상 행복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어요. 누구에게? 여동생에게, 남동생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아기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요. [...]

¹ Selezione di risposte di Chiara Lubich alle e ai Gen 4, a cura dei Centri Gen 4 – edizione 2021.

² Castel Gandolfo, 18 giugno 198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4.

*가끔 저는 예쁜 것들을 많이 갖고 싶어요. 연필이랑, 지우개랑... 색깔이 예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³

Chiara: 내가 답해 줄게요. (...)

색깔이 예쁜 것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했지요? 색연필이나 색깔이 든 지우개나. 그런데 걱정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색연필이나 색종이나 색깔이 든 지우개 등을 너무 좋아하면, 나는 이상을 살지 않는 걸 거야.”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도... 나도 색깔이 든 지우개를 아주 좋아하고 색깔 연필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든 클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도 늘 그런 색깔이 예쁜 것을 갖고 싶어요. 그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네가 말한 “만일 예쁜 색 물건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럼 그것들을 버려야 해.”라는 말은 맞아요.

가령, 학교 친구가 “그 색깔이 든 지우개를 나한테 줄래.” 하고 청하면, 그걸 친구에게 주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말이에요. 항상 사랑해야 하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니 물건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요. 너도 항상 이렇게 말하도록 해요. “끼아라도 색깔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게 너의 사랑을 앗아간다면, 안 돼요. 그럼 안돼요. 그걸 한 쪽으로 치우고 네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그렇게 해요. (박수)

*끼아라, 우리에게 항상 주라고, 아낌없이 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줄 것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요? 이 질문은 한국 김 가우디아의 질문이에요.*⁴

Doni: 자, 여러분에게 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게도 줄 것이 없지 않아요! 네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아요.

가령, 여기 그림들을 보세요. 벽에도 붙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어요. 가령, 연필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하는 일을 도와줄 수도 있지요? 어떤 놀이를 잘 모르는 친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슬픈 친구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에게 다른 할 일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그 친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요! 상냥하게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사랑을 담아서 상냥하게 답하도록 하세요. 간식이 없는 친구에게 여러분의 간

³ Città del Messico, 8 giugno 1997 – all’incontro con la comunità del Messico, domanda n.2.

⁴ Castel Gandolfo, 26 giugno 2004 - Doni al Congresso Gen4 porta le risposte di Chiara, domanda n.18.

식을 조금 줄 수도 있어요! “잘 잤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사랑을 담에 인사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미소를 지으며, 남동생에게, 엄마에게 “잘 잤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요? 미소를 지어 줄 수도 있지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항상 할 수 있어요! 혼자 있거나 병이 든 친구나 앓고 있는 동생 곁에 있어 줄 수도 있지요. 침대에 있는 것이 지루할 텐데, 곁에 있으면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선물을 줄 수도 있지요. 어버이날이나 친구 생일에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슬픈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집으로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엄마, 나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줄 것이 많은지 알겠지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주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가요?*⁵

Chiara: [...]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게 물었어요.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천상 마리아폴리, 곧 천국으로 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산책을 했니? 놀이를 했니? 이걸 했니, 저걸 했니, 밥 먹었니...” 이런 것을 묻지 않으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4젠은, “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나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네 남동생에게 한 것은 모두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네 남동생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그걸 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 4젠은 내게 옷을 주었다.” 그럼 4젠은 너무 놀라서 말할 거예요. “어, 제가 언제 주님께 옷을 드렸나요?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네가 그 작은 옷을 그 가난한 친구에게 주었을 때, 그 때 나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야. 그러니 천국으로 오렴.” 그러니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우리 남동생들을 사랑했는

⁵ Castel Gandolfo, 18 giugno 198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11.

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찾아주었는지, 곧 아픈 4 젠들이나 아픈 어른들도 찾아보았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전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걸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보아요. 저기 위에 한 아이가 엄마를 도와 설것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설것이를 해 주었다.” 그럼 4 젠은 “어, 제가 언제 설것이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때 너희 엄마에게 해 준 것이 내게 해 준 것이란다.” 그리고 저기 4 젠이 다른 4 젠에게, 아마 좀더 어린 4 젠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어요. 여기 밑에 있는 4 젠은 아마 아프리카 4 젠인 것 같은데, 공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공을 주어요. 그리고 저기 4 젠은 할아버지에게 안경을 가져다 드리지요.

자,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해준 사랑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너는 그걸 내게 해주었다. 내게 해 주었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

끼아라, 어떻게 하지요? 제게 다니엘이라는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늘 놀고 싶어 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⁶

Chiara: [...]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4 젠은 정말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계속 조르면 이 4 젠은 늘 주고 주고 또 주어야 하지요. 그러니 사랑의 행동을 할 기회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 4 젠이 가령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해야 한다면,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때 하느님 뜻은 숙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해요. “다니엘, 착하지, 지금 난 숙제를 해야 해. 그러니 지금은 네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으니, 혼자 놀도록 해. 내 숙제가 끝나면 너랑 놀아 줄게.” 자,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럼 남동생도 이해할 거예요. 남동생도 바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동생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할 거예요. 이해하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나중에, 물론 숙제가 끝나면, 이 4 젠도 놀이를 하면서 사랑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박수) 자, 여기 4 젠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지금 나는 숙제를 해야 하니까, 착하게 혼자 놀도록 해. 나중에 같이 놀아 줄게.” [...]

끼아라,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⁷

⁶ Castel Gandolfo, 18 giugno 198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15.

⁷ Castel Gandolfo, 7 giugno 199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5.

Chiara: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늘 똑같은데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지 보기로 해요. [...] 첫 번째로,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해요. 가령 집에 돌아와서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내 동생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해. 하지만 고모는 사랑하지 않아”라고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해. 저기 내 친구를 사랑해. 저기 다른 아이도... 그런데 저 아이는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지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을 이기고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이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이기고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 먼저 사랑해야 해요. 곧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항상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이 심심하고 지루해서 입을 뽀로통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전부 싫은 거지요. 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럼 기다리지 말고, 동생이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해요.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세요. “어디 아파?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말하고 싶어? 같이 밖에 나가 놀까? 같이 놀이 할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야 해요.

그러니 첫 번째로 모두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 모두모두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흥한 사람도, 걸인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 저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나라 아이 안에서도, 사랑하기 힘든 저 다른 나라 아이 안에서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 보아야 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해주었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까지 말했어요. 여러분의 주사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라고. 만일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께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을 사랑해야 하지요. 예수님이시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의 주사위에도 있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돌을 던진다면 나는 기분이 안좋을 거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그 아이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기분이 상해요.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주사위에 적힌 것을 잘 실천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세요. 이 4 젼이 질문한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이렇게 답해

요. 주사위에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주사위에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적혀 있어요.

이 주사위는 아주 중요하니 그걸 기억하도록 하세요. 끼아라도 그 주사위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그 예쁜 주사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알아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가 되어 주어요”, “상대방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모두를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먼저 사랑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잘 간직하도록 하세요. 아무도 이걸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 또 다른 예수님이 되려면 주사위를 잘 실천해야 겠지요! [...]